



## Called to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가치관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의 daily theme은 'Called to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음지라도 십자가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통해, 다른 코스타와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자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 조별 QT와 코스타의 무대 (최현숙 자매: 노래)과 코스타의 현장 (양승혜 자매) 이후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화종부 목사의 마지막 주제강의가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김현희 목사의 마지막 책소개 이후에 코스타들은 북한과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오후** -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세미나 세션이 열립니다. 특히 두번째 세미나 세션에는 14개의 세부분야에서 학문과 신앙, 또는 삶과 신앙의 통합을 고민하는tmKOSTA와 8개 세미나 강의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서로 다른 코스타 형제, 자매와 열띤 토론도 나누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해가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녁** - 김동록 박사의 일터의 현장 간증에 이어서, 손창남 선교사가 어제에 이어 'Called to the Kingdom of God - 아직 때가 이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와 초청을 통해 코스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이어 기도의 밤으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시카고 코스타 2008 집회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됩니다. †

### 알려드립니다 (1)

#### 1. Meal Card 안내

목요일 저녁식사 때에 meal card를 발급합니다. 카페테리아 입장하실 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2. CD 판매안내

Edman Chapel 로비에서 강의 CD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당 3불이고, 전집은 오늘 중으로 주문하시면 150불입니다. 금요일에 주문하시는 경우는 165불이고 코스타 이후 배송해 드립니다.

#### 3. Shuttle 예약 및 Carpool Board 안내

금요일 셔틀버스 티켓을 Expo Cafe에서 판매합니다. 카풀 보드도 Expo Cafe에 설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4. Holiday Inn Checkout 안내

Holiday Inn에 숙소가 있으신 분은 금요일에 셔틀버스타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짐은 Alumni Gym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 Daily Themes

월: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

화: People of the Kingdom

수: The Kingdom, here on earth

목: Called to the Kingdom of God

금: We are Servants of the Kingdom

# 2008 코스타 셋째 날 이야기

4박 5일의 코스타 기간도 이제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 두 번째 주제강의에서 화종부 목사는 야고보서 2:14-26을 통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로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행위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과 정답권을 살린 라합의 예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믿음의 결과로 반드시 행위가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이어진 추천도서 소개 시간에 김현희 목사는 어제 코보에 실린 3권의 책과 더불어 Roy Hession의 The Calvary Road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낸 Family Time이 있었습니다. 여러 코스탄들은 Expo를 방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였고, 서점에 들러 우리의 영혼을 살릴 책을 읽고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Family Time 후에는 세번째 세미나 세션을 통해 코스탄 선배님들의 귀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사도행전 11:19-21을 본문으로 'The Kingdom, here on earth - 흠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창남 선교사는 흠어진 예루살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창남 선교사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과거에는 업신여겼던 이방인에게 나아갔으며, 그러기 위해 그들의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우리도 그 때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지상명령에 가치를 부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어진 헌신 초청에서 많은 코스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였고, 96명의 코스탄은 타문화권 선교에 자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코스탄들은 박수로써 선교헌신자들을 열렬히 축복하였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는 세번째 조별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깊어지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헤어짐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깊어집니다. †



## 인디에서 온 편지

**살**갓에 닿는 바람이 차기까지 한 여름, 인대어나 중원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인 Anderson University에는 만 25세 이하, 여러분의 동생벌되는 560여명의 젊은 코스탄들이 모인 KOSTA/USA Indianapolis conference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2008 KOSTA/USA Indianapolis conference에는, 올해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수많은 강사들도 모여 들었습니다. 김도현 교수 (오전 주제강의), 김동호 목사 (높은뜻 승의교회), 이현모 교수 (침례신학대)을 비롯한 많은 세미나 강사들과 jjKOSTA 멘토, 그리고 전문 상담가들이 섬기고 있고요.

올해 KOSTA/USA Indianapolis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바로 그룹상담입니다. 코스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담내용을 집회 전에 미리 모아, 세미나 시간에 여러 명의 전문상담가와 코스탄들이 모여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룹상담은 진로/비전과 이성교제의 두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Indianapolis conference는 Chicago conference와 다른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기도회입니다. 늦게까지 지속된 전날 조별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6:30에 모든 참석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가집니다. 새벽 찬바람을 가르고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새벽 이슬같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두번째는 찬양시간입니다. Indy KOSTA는 모든 코스탄이 뛰면서 드리며 찬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번 찬양팀은 그동안 Chicago conference에서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해 오셨던 박성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셔서 더 친근하답니다.

Indianapolis conference에게 참석한 여러분의 동생 코스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경험하는 데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



[사설연재 3]

##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원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자씨와 같이 시작하였지만 그 큰 나무 속에 새들이 날아와 쉬는 나라이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과 부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간성이 가장 충실하게 발현되는 참된 의미의 삶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한다. 악의 나라에 대항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질서인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 오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로부터 임하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하는 일은 들어가고 상속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초월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이 신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내재적인 제한성이 없는 무한의 하나님에게서 초월적으로 오므로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로 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우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할 때 의미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

셋째,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의 적극적인 제자도의 삶으로 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영성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의 소욕을 억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욕구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가능하다.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초대한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 고립되고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의미의 평화이기도 하다. 고요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정이기도 하다. 초월에서 은혜로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곳에 참된 의미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

## [코스타 서평 4] 세계관/윤리/진로/직업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관심있는 주제이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삶을 쉽게 내다 보기 힘든 불투명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호소력 있는 주제가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동하는데 도움이 될 책을 소개해본다.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IVP**

**리처드 미들턴,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살림출판사**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SFC**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세 책은 기독교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큰 틀을 제공하는 교과서적인 책들이다. 창조, 타락, 구속은 세상의 창조, 죄에 의한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의한 새로운 사회의 창조라는 주제를 교과서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입문서이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주제를 좀더 확장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등 현대의 사조와 비교, 대조한 책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적인 틀에 검토해보는 책이다. 세계관 문제를 좀더 지성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 될 것 같다.

**리처드 헤이스, 신약의 윤리적 비전, IVP**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정치, 이혼과 재혼, 동성애, 반유대주의와 인종 갈등, 낙태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어떤 견해를 갖기 전에 성경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원칙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책의 전반부에서 논의하듯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연구할 때 바울서신, 복음서, 계시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두란노**

**The IVP Women's Bible Commentary**

복음주의권에서 성적 차별의 문제, 여성성과 남성성의 역할 문제, 여성성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가운데 성적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의미 있는 문제제기와 성경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은 교회 안에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좀더 바람직한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IVP Women's Bible Commentary는 여성 저술가들에 의해 여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신구약에 대한 각 권 주석을 시도한 책이다. 본문 중 이슈가 될만한 70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에세이도 포함되어 있다.

**제임스 패커, 캐롤린 나이트롬, 하나님의 인도, 생명의 말씀사**

우리는 매일같이 삶 속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외부의 징후를 통해 확인해야만 안도감을 느끼고, 각자의 지혜와 분별력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다든지, 혹은 지나친 신비주의를 용납하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면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기획기사 4]

**우**리는 기획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그가 주장하고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의 확증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와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다.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예수님은 당시의 세상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거스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다른 종교 운동을 추구하는 공동체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폐쇄된 집단, 분파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는 곳이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던 세리들과 창기들도 초대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과 직업, 종교적 성향,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고 그것에 반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셨다. 곧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다양성과 예수님의 관심인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 교회의 기본 성격이라 하겠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가 특별히 구별하여 자신의 사역에 언제나 동참하도록 부른 열두 사도 공동체도 비슷한 성격을 띤다. 그들의 출신은 매우 다양하여 그 안에는 강한 민족주의자(Zealot)들뿐 아니라 세리라는 식민지 정부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열둘이라는 숫자에는 이스라엘 전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했는데 세상에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한다. 사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임재하는 장으로 삼으심으로 자신과 그 공동체를 동일화하였다. 그것은 자기 자신인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를 동일화하는 것이었다. [마 18:17, 20]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사도들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한다.

([엡 1:22-23]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 1:18-20]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재이며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비전은 죄로 인해 분리되고 분열된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되고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 7:10-11]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분열과 분리, 소외와 배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려는 모든 성도들의 노력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가게 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은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전이하며 역사 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점을 공동체가 공감하고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비전은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지도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만들어 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며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재하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화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노력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가 그것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나아가갈 때 그것은 가능한 미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

**기획기사연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코스타 보이스는 이번 코스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기획기사 1**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
- 기획기사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 십자가
- 기획기사 3**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 기획기사 4**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 기획기사 5**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주권 -  
하나님 나라와 악의 문제

[ 강사 인터뷰 ]



**손창남 선교사**  
 >>전역(설교 (수, 목)  
 국립세무대학 회계학 교수  
 OMF 선교사  
 인도네시아 두파와짜나대학 교수사역  
 인도네시아 JOY사역  
 OMF 한국대표  
 한국 JOY 이사장

1.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코스타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2년 정도 교수로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 OMF 대표로 7년간 동원 사역을 했구요. 인도네시아에 가기 이전에는 국립 세무대에서 교수 9년간 일을 했고, 그 전에 1년 정도 시간강사를 했으니 한국에서 10년간 가르친 셈이네요. 아내와 두 자녀 (딸, 아들)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스타에는 첫번째로 참석합니다. 작년에 초청받았으나 같은 기간에 선약이 있어서 오지 못했고 다음에 초청받으면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스타 기간에 미리 스케줄을 비워놓았지요.

2. 선교 활동을 캠퍼스에서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집중해서 일을 하셨는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기가 고3이었고 JOY에서 대학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가 의미있게 기억되고 있구요. 젊은이에 대한 마음과 더불어,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다보니 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훈련 시키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생사역을 한 기간이 20년이 넘다 보니 익숙하고 편합니다.

3. 10여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 본부로 돌아오셔서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현지 사역과 본부 사역이 체감적으로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현지 사역은 재미있습니다. 아픔도 있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제 자신 역기도 꺾여나가고 성숙해지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반면에 대표로서의 사역은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흥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4. 이번 코스타에서 어제와 오늘 저녁에 걸쳐 두 번의 설교를 해주십니다.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코스타인들이 어떠한 부분을 깨닫고 도전받기를 기대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셨나요?

부탁받은 주제로 준비했지만 부탁받지 않았어도 아마 이 두 개의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선교 헌신에 관한 것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흠어진 사람들이 지역적, 문화적 변화를 겪어가는 것을 통해 타문화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코스타인들이 헌신함으로써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두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눈뜨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뜬 이야기는 소경보다는 그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꼭 해외선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눈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5. 올해 주제가 '이 시대에 바른 길로 -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타인들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원론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이중구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치우치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타와 같은 집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6. 수요일 설교에 온 땅으로 흠어진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현재 전세계에 흠어져있는 한국인의 모습도 당시의 흠어진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흠어진 한인 디아스포라가 세계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코스타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한국인으로서 코스타인 해외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계선교를 이루어가실 것에 대해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코스타들도 개인적인 성취 때문에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눈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문화를 경험한 한국인의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미 경험한 것도 그렇지만, 부흥을 경험한 나라에서 온 선교사가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7. 많은 코스타인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구요. 이 중에서 해외 선교에 헌신한 코스타인들이 파송받게 된다면, 아마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선교사님의 후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로 자신을 준비해가고 있는 코스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전문인 선교를 지향하는 두 종류의 나쁜 예가 있는데, 선교에는 헌신되어 있는데, 전문적 분야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문성은 있으나 교회 사역 이외에 다른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파송 이전에 본국에서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사역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추후 ekosta.org에 실릴 예정입니다.)

[ 코스타와의 만남 ]

tmKOSTA

배윤영 (음악분야코디) 인터뷰



1.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코스타에는 몇번째 참석하시나요?

벤엘교회에서 찬양팀과 셀 리더, 오케스트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피바디 음대를 졸업하고 피바디 예비학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스타는 2002년에 조원으로 첫 참석한 이후에 올해가 5번째 참석입니다. 2005년부터는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2. 코스타가 대략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요? 지난 코스타와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다른 느낌을 받으시나요?

주제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닫고 싶었구요. 특별히 음악 부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깊이있게 고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년 참석할 때마다 주제에 맞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매년 새로웠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위해서 왔다면, 요즘은 영혼들과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구요. 하나님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3. TM 코스타에 이전에 참석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때의 경험을 간략하게 나누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 참석합니다. 첫 해에는 자원봉사로, 이후에는 찬양팀 연습과 겹쳐서 아쉽게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4. 올해 TM 코디로 섬겨주시는데요. TM세션에서 어떤 내용을 나눌 계획이신가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음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는 신앙 있는 음악가들이 최전방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음악계 안에서의 가치관의 갈등이라든지, 음악은 자신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가 무척 쉬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또한 모순이 존

재합니다. Competition이나 Audition 등에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과 경쟁 의식과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 사이의 갈등도 다루고 싶었구요. 음악은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전도하기에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나눔의 시간을 갖고 역할 모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 주제와 질문이 많습니다.

5. TM 세션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나누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같은 전공 분야의 지체들을 만나게 되는데, 코스타 집회에서의 만남 뿐만 아니라 집회 이후의 계획 혹은 비전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곳곳에 흩어진 비슷한 고민과 질문을 가진 '악기 가진 치유자'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코스타를 비롯하여 컨퍼런스 4개를 참석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역마다 심겨진 음악 전공의 캠퍼스 사역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가을 벤 캠펠 존슨의 <목숨 걸 사명을 발견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음악과 신앙의 통합이 개인적인 사명이라 생각하게 되었구요. 지역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동역자들과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2009년 8월에 MUSIC (Musicians In Christ) 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club.cyworld.com/musiciansinchrist> 를 방문해서 참고해 주시고, 문의가 있으시다면 [musiciansinchrist@gmail.com](mailto:musiciansinchrist@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OSTA in KOSTA

‘내’가 몸담고 있는 연구분야는 대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직업이 소명이라는데, 정말 그런 걸까’ 혹은 ‘많은 코스타 중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오신 코스타와 함께 고민하려는 모임이 바로 tmKOSTA입니다.

tmKOSTA는 Task Major KOSTA의 약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코스타들의 헌신이 학문과 신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에 뿌리를 내린 학문 연구와 신앙생활을 격려합니다. tmKOSTA의 전공별 그리고 관심사별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은 각 영역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및 삶의 상황을 나누시게 됩니다. 또한 같은 전공 및 관심영역 안에서 동역자들을 얻고 교제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속한 세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구체적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시카고 코스타에서는 교육학, 음악, 정치학, 직장생활, 캠퍼스 사역 등 15개의 세부분야에서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자세한 분야별 설명은 교재 P.167-173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이나 관심사를 찾지 못하신 분은 같은 시간에 기초 세미나를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tmKOSTA에 참석하고 싶지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구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Alumni Gym앞에 가시면 세미나 티켓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서 가지고 계신 세미나 티켓을 tmKOSTA 분야 중 하나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

[ 코스타 광고 ]

# 선택식 세미나 Session 4 (1:45 ~3:05 pm)

| 코드       | 제목  | 강사           | 강의실                                    |
|----------|---|--------------|--|
| SP 101   | 부르심의 확신   | 이재훈 목사       | Billy Graham Center 254                |
| SP 102   |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 Min Chung 목사 | Billy Graham Center 132                |
| SP 109   | 하나님 나라 "ANY CALL" 큐티를 아시나요?                                   | 박동희 선교사      | Memorial Student Center 302            |
| SP 111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함종현 목사       | Billy Graham Center 12 (지하)            |
| SP 113   | 울 아빠 어떻게 해? 내 친구는?  | 김태평 박사       | Memorial Student Center 304            |
| SP 121   | 귀납적 성경연구 (실습)   | 하시용 목사       | Memorial Student Center 105            |
| SP 130   | 청지기 신학: 세상에 내것은 하나도 없다  | 한규삼 목사       | Billy Graham Center 130                |
| SP 140   | 신앙생활  | 김철홍 목사       | Billy Graham Center 140                |
| SP 210   | 한국으로 돌아갈까? 미국에 남을까? 답은 소명!                                    | 팽동국 교수       | Billy Graham Center 136                |
| SP 220   | '렉시오 디비나' 영성훈련: 성경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 김미혜 목사       | Billy Graham Center 250                |
| SP 230   |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과 방향   | 이재천 목사       | Memorial Student Center 202            |
| TH 110   |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  | 황지성 박사       | Billy Graham Center 10 (지하)            |
| TH 240   |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   | 김현희 목사       | Blanchard 322                          |
| TH 260   |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 김수지 교수       | Blanchard 455                          |
| TH 340   | 기독교 or 개독교?   | 손희영 목사       | Billy Graham Center Barrows Auditorium |
| FC 110   | 배우자 선택, 이럴 때 꼭 짝어라  | 김향숙 원장       | Blanchard 339                          |
| FC 111   | 싱글이를 병글이로 만들자   | 송길원 목사       | Blanchard 222                          |
| FC 140   | 신세대 자녀교육  | 변명혜 교수       | Billy Graham Center 130                |
| TM 320   | 전략적 Career Development 어떻게 할 것인가?                             | 장범 집사        | Blanchard 139                          |
| TM 340   |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미디어   | 이태형 소장       | Blanchard 324                          |
| JJ 200   |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양육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                               | 추영규 권사       | Billy Graham Center 134                |
| JJ 210   |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와 인생계획   | 장평훈 교수       | Billy Graham Center 138                |
| JJ 340   | F-2를 향한 도전과 극복  | 이민자 사모       | Blanchard 323                          |
| JJ 360   | 20분짜리 찬양 디자인  | 이유정 목사       | Breyer 207                             |
| JJ 370   |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Reaching the World Around You | Bill Saxton  | Breyer 111                             |
| MS 210   | 은사 중심의 선교 - 당신의 다양한 전문성을 세계선교에 활용하라                           | 정민영 선교사      | Billy Graham Center 11 (지하)            |
| MS 220   | 전문인 선교  | 유성남 선교사      | Memorial Student Center 204            |
| MS 330   | 한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전략                                     | 김병문 교수       | Billy Graham Center 255                |
| GTM 1600 | 아브라함과 사도바울과 같은 사업가가 되라  | 강보형 CMO      | Blanchard 140                          |

◎지도번호 건물이름

1, Blanchard Hall 2, Billy Graham Center 7, Breyer Laboratory 8, Armerding Hall 11, Memorial Student Center

[ 김현희 목사 추천도서 3 ] **오전시간 전체집회**에서 소개되는 김현희 목사님 추천도서의 상세한 소개입니다.



### 순전한 기독교 C. S. 루이스, 홍성사

다시 설명이 필요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이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 루이스는 성경을 인용함 없이 인간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더불어 기독교 윤리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역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루이스 특유의 탁월한 통찰들을 보여준다.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이 책을 읽고 회심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트, IVP

영국 성공회 목회자로서 성경강해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한 탁월한 저서들로 유명한 저자는 본서에서 현대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본서는 최초의 영문판의 제목 "참여(Involvement)"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계도에 머물러는 성향이 강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기독교적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참여할 것을 종용한다. 각 이슈에 대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완전한 진리 낸시 피어시, 복있는사람

이 책의 핵심은지는 기독교 진리는 사실과 가치, 과학과 종교를 나누는 이분법에 굴복하여 개인적, 주관적 선호의 영역인 "가치"나 "종교"의 영역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의 세계를 포괄하는 총체적 진리(Total Truth, 대문자 T)이지, 존재와 삶의 개별적 영역 중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진리들(소문자 truths)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랜시스 쉐퍼의 제자인 저자는 특히 다윈주의적 자연주의 세계관에 맞서서 기독교 세계관의 탁월성과

정합성을 자세히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 코스타 광고 ]

# 선택식 세미나 Session 5 (3:20 ~4:40 pm)

| 코드       | 제목   | 강사          | 강의실                                    |
|----------|--|-------------|--|
| SP 101   | 부르심의 확신  | 이재훈 목사      | Billy Graham Center 432                |
| TH 101   | 성경의 이해   | 권지현 목사      | Memorial Student Center 202            |
| TH 110   | 하나님 나라의 괴리독스   | 황지성 박사      | Billy Graham Center 10 (지하)            |
| TH 260-1 |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 김수지 교수      | Blanchard 455                          |
| FC 101   | 바운더리와 인간관계   | 방춘원 집사      | Billy Graham Center Barrows Auditorium |
| TM 101   | 직업은 많으나 부르심은 하나  | 강보형 목사      | Blanchard 339                          |
| JJ 101   |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제자 훈련  | 윤국진 목사      | Billy Graham Center 255                |
| MS 101   | 예비 선교사를 위한 조언: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 홍현민-홍귀주 선교사 | Billy Graham Center 136                |
| GTM 100  | Bible-Based (Christ-Centered) Leadership and Followership in Education | 신한길         | Billy Graham Center 130                |
| GTM 200  | 과학 연구 방법을 통해 본 올바른 성경의 이해  | 장서봉         | Billy Graham Center 134                |
| GTM 300  |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훈련  | 김미혜 목사      | Billy Graham Center 250                |
| GTM 400  | 캠퍼스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길  | 유남호 박사      | Billy Graham Center 138                |
| GTM 700  | 직장에서의 크리스천 리더십   | 전명희         | Blanchard 139                          |
| GTM 800  | 미래의 공학은 어디로 가며, 공학을 통하여 소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안중혁 교수      | Billy Graham Center 132                |
| GTM 900  | 우리 앞에 선 여리고성 다윈이즘  | 이성일         | Blanchard 222                          |
| GTM 1000 | 지역교회 찬양사역 Q&A  | 이유정 목사      | Breyer 207                             |
| GTM 1100 | 음악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 배윤영         | Blanchard 324                          |
| GTM 1200 | 그리스도인의 학문과 하나님 나라  | 장성준 교수      | Blanchard 322                          |
| GTM 1300 | 세계화와 기독교적인 정치관   | 하은영 박사      | Billy Graham Center 140                |
| GTM 1400 | 문학과 신앙   | 우지미 박사      | Memorial Student Center 105            |
| GTM 1500 | 과학과 신앙의 화합을 위한 과학자들의 역할 (TM340 참석자로 제한)                                | 우종학 박사      | Memorial Student Center 204            |
| GTM 1700 | 선교현신자들을 위한 What's Next?  | 김성모선교사      | Memorial Student Center 302            |

◎지도번호 건물이름

1, Blanchard Hall 2, Billy Graham Center 7, Breyer Laboratory 8, Armerding Hall 11, Memorial Student Center

## 알려드립니다 (2)

### 1. tmKOSTA 신규 추가 분야 안내

- ♦ **GTM 1500 과학과 신앙의 화합을 위한 과학자들의 역할** >> 참석자격을 TM 340 참석자로 제한합니다.
- ♦ **GTM 1600 아브라함과 사도바울과 같은 사업가가 되라** >> 세미나 session 4에 진행됩니다.
- ♦ **GTM 1700 선교현신자들을 위한 What's Next?** >> 어제 저녁 집회에서 선교에 헌신한 분들과 3개월부터 2년 선교 인턴십을 선교지에서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선교를 가고 싶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1년 동안 또는 한학기 (3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인턴십을 갖고 싶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교에 헌신하였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 등등.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함께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스타는 선교 헌신자들의 선교 헌신이 열매맺을 수 있도록 돕는 팔로업 사역(미션 코스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션 코스타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계획을 찾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정보를 얻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2. tmKOSTA 취소 분야 안내

- ♦ GTM 500과 GTM 600은 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세션에 등록하셨던 분은 다른 관심 분야나 기초 세미나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3. 성가대 안내

금식기도 직후에 Billy Graham Center의 Barrows Auditorium에서 리허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리허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4. jKOSTA 안내

금요일 7시 15분에 카페테리아의 South Party Room에서 조장 모임이 있습니다.